

다문화가정 부부관계가 유아의 또래관계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 일반가정유아를 비교대상으로 -

김진희** · 임지영***

요 약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에서의 부부관계가 유아의 또래관계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다문화유아와 일반유아 각각 60명씩 총 1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들의 어머니와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부부간의 관계가 자녀의 또래관계 및 자녀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관계(결혼만족도, 부부갈등)가 유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반가정의 경우 부부관계가 유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유아의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부관계(결혼만족도, 부부갈등)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모두 부부갈등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부갈등이 일반유아와 다문화유아의 정서지능 하위변인별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일반유아만이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과 교사와의 관계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지능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부관계 향상을 위해서는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남편, 시부모 교육 프로그램,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주제어 : 다문화가정 결혼만족도, 다문화가정 부부갈등, 다문화가정 또래관계, 다문화가정 정서지능

논문투고일 : 2013. 4. 15

최종심사일 : 2013. 5. 30

게재확정일 : 2013. 6. 13

* 해당 논문은 본인의 석사학위논문의 내용 일부를 정리하여 게재한 것임

**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주저자

***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아동가족학 전공 부교수/ 장수생활과학연구소 연구위원

Corresponding Author : Lim, Ji-Young, School of Child Studies, Major in Child and Family Studies ·CBA(Center for Beautiful Ag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80 Deahak-ro, Buk-gu, Daegu, 702-701, Korea. E-mail : limj@knu.ac.kr.

I. 서론

우리는 현재 급격한 세계화로 인해 외국과의 교류가 자유로운 시대, 즉 세계 속의 한국이 아닌 세계화된 한국에 살고 있다. 서울시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2011년 3/4분기 서울시 등록 인구는 약 1천 56만 명이고 이 중 약 29만 명이 외국인으로 서울시 인구 중 2.71%를 차지하고 있는데,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한국인 등록 수는 2010년 보다 4만여 명 정도가 감소하였으나 외국인 등록 수가 2만여 명 정도 증가하였다(메디컬투데이, 2011년 12월 3일)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점점 더 다양화되어져 가고 있다. 2011년 법무부의 집계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140만 명을 넘었고, 이 중에서 결혼이민자의 수는 체류외국인의 약 10%인 14만여 명이다(남자 1만9천여 명, 여자 12만 3천여 명, 법무부, 2011).

이와 같이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수도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다문화가정은 현재 한국 사회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는 이주근로자 · 외국인유학생 · 난민 · 북한이탈주민 등의 이주민과는 달리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장기 거주하며, 숙주주의 방식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한국국적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안진경, 2011). 그러나 단일혈통과 문화를 강조하는 잠재의식이 뿌리 깊은 한국 사회에서 결혼 이주 외국인 여성과 그 자녀들이 한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서양에서보다 더 많은 심리사회적 부적응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박미경, 2007). 아직도 상당수의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언어 혹은 생활습관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갈등(권복순, 차보현, 2006), 가정경제의 어려움(이혜경, 2005), 자녀양육과 교육, 친척 · 이웃과의 관계 및 사회적 편견(김이선, 황정미, 이건영, 2007; 윤형숙, 2004)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한국가정에서도 가치관과 성격, 성장환경 등의 차이로 인해 부부간에 충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들이 만나 단기간에 가정을 이루게 된 다문화가정의 경우, 같은 민족으로만 구성된 가정보다 부부간의 갈등이 더 잦을 수 있고(홍달아기, 채옥희, 2007), 부부갈등을 해결하기에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언어적 문제를 포함한 이러한 다양한 차이는 배우자나 가족원과의 대화를 기피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고립시켜 부부갈등으로 이어져 결국 결혼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홍달아기, 채옥희, 2007). 물론 한국가정에서도 가치관과 성격, 성장환경 등의 차이로 인해 부부간에 충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들이 만나 단기간에 가정을 이루게 된 다문화가정의 경우, 같은 민족으로만 구성된 가정보다 부부간의 갈등이 더 잦을 수 있고, 부부갈등을 해결하기에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부부관계는 유아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원만하고 긍정적인 부부관계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녀의 성장환경 및 유아의 발달 영역 전반에 걸쳐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된다(김혜영, 1995). 하지만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불안정한 가정은 유아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아는 부모로부터 정서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모델링함으로써 자신의 정서조절능력을 키워나가기 때문에 부부사이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역할 모델로서도 매우 중요하며, 상호작용하는 방법과 부부의 조화로운 모습은 다양한 측면에서 유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강은정, 2010). 특히 다문화가정 부부갈등은 일반가정의 부부갈등과는 다르고(현경순, 2008), 부부갈등 시 나타나는 다문화 가정 부모간의 불평등한 관계(강선자, 2011)로 인해 다문화가정에서의 부부갈등이 유아의 사회성과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가정과는 다를 수 있다. 유아는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최초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부모로부터 사회 적응 능력을 배우므로, 부모간의 갈등에 민감하고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Grych & Finchman, 1990). 이에 부부관계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고려하면서 유아기 아동의 사회 ·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의 사회 · 정서적 적응을 연구하는데 있어 유아의 또래관계와 정서지능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먼저 또래란 비슷한 나이와 발달 특성을 갖는 유아들의 사회적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유아가 태어난 후 초기의 사회성 발달은 부모와의 애착형성에 기초를 두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보육시설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유아는 가정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접촉 대상이 확대되어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정옥분, 2007). 즉, 유아기 동안 자기 자신과 비슷한 연령의 또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 또래관계에 대한 관심 및 영향력도 증가하게 된다(임지현, 2009).

또한 또래관계는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유아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타인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타인을 이해하게 되며, 신체적 · 인지적 ·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맥락을 경험하게 된다(마송희, 1992). 게다가 또래와의 관계는 유아의 성격 형성과 향후 성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황매향, 고흥월, 2010). 그러나 다문화가정 유아의 경우 편견 및 따돌림으로 인해 또래에게 수용 받는 경험이 부족하고 또래에게서 스스로를 차단시킴으로써 심리사회적 적응 및 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즉,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일반 가정 유아들과 다르게 원만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또래관계를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신윤진, 2010; 김현경, 2009).

유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환경적 요인으로 가족, 그 중에서도 부모들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족은 인간이 태어나 처음 접하게 되는 곳이며, 지적, 정서적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태도를 익히고 안정감을 느끼며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일차적인 곳이다. 특히 부모는 유아가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인 성장의 틀을 발달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조경은, 2008; Thomas, 1977), 심각한 부부 간 갈등이 있을 때에는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반응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대하게 됨으로써, 유아의 높은 스트레스와 분노, 부적응 행동은 물론, 또래와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정아, 2009). 일례로,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또래에 대한 공격성이 증가하고(정은희, 이미숙, 2004; 권영옥, 이정덕, 1998), 특히 유아의 경우 가족분위기가 화목하다고 지각할수록 또래에 대한 공격성도 낮은 반면, 집단 따돌림 가해 집단처럼 또래에게 공격적인 유아는 일반집단보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긴장이 심하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정아, 2009).

이에 Salovey와 Mayer(1990)는 개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적인 능력으로 정서지능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 정서지능이란 이성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하거나 억압하고 제한하기도 하는 감성능력, 좌절의 상황에서 희망을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절제하고 통제하며 타인들의 감정에 대해 예민하게 느끼고 인내심을 지속시켜 근심으로 인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방해받지 않도록 정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인내심과 지구력, 정열과 용기, 신념과 절제력,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통제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능력이다(문용린, 1997). 정서지능에서 말하는 정서는 규칙적이고 일반적이며 사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정서지능에서의 지능은 지적인 능력을 말하며, 이 능력은 정신 기능의 인지적인 측면을 의미한다(Salovey & Mayer, 1990). 정서지능은 대인관계와 매우 밀접히 관련되어 정서지능이 높으면 쾌활하고, 사회적으로 걱정이나 두려움에 집착하지 않으며, 책임감과 동정심이 강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알며, 정서표현을 적절히 하여 자신과 타인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특성을 지닌다(강연희, 2008). 즉, 정서지능은 또래관계와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 · 정서적 적응의 지표 중 하나이다. 최근 여러 가지 갈등상황에 대처하고, 사회생활에서 적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정서지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정서지능도 부부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김미진, 1997), 부부가 가정 내에서 부부결합도가 높고 부부가 행복할 때 유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도 자신을 조절하고 배려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유아에게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친다. 즉, 이런 가정에서 유아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능력과 배려할 수 있는 정서지능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문제행동을 줄이기도 한다(강은정, 2010). 이처럼 부부관계는 유아의 정서지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해마다 다문화가정은 늘고 있고, 이들은 한국 사회 속에서 새로운 한국인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최근에 급격한 속도로 다문화사회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청소년들보다 영유아의 수가 훨씬 많은 실정이다(다문화가정 자녀들 중 6세 미만 57.1%, 7~12세 이하 32.2%, 행정안전부, 2008). 이에 그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유아기가 또래관계와 정서지능이 외현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미래 적응문제를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다문화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은 국제결혼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가정과 다른 가족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일반유아를 다문화유아의 비교대상으로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에서의 부부관계는 다문화가정 유아와 일반가정의 유아의 또래관계와 정서지능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 다문화유아와 일반유아를 비교하여 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유아의 발달 연구에 관한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측정변인들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일반가정에서 부부관계(결혼만족도, 부부갈등)가 유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다문화가정에서 부부관계(결혼만족도, 부부갈등)가 유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일반가정에서 부부관계(결혼만족도, 부부갈등)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5. 다문화가정에서 부부관계(결혼만족도, 부부갈등)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고찰

1. 부부관계

부부관계는 많은 인간관계 유형 중에 가장 가까운 관계이며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이다(Mace, 1976). 그러나 성장 시의 가족체계나 성격 및 인생경험 등이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 부부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부부사이에 있어 부부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다(김은숙, 2001). 특히 서로 상이한 문화 안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습득한 국제결혼 부부인 경우 서로 다른 문화의식과 가치관은 부부의 결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강선자, 2011; 이명자, 2009; 홍달아기, 채옥희, 2007). 부부관계는 부부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구성원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부모의 결혼만족도나 긍정적인 부부관계는 유아의 대인관계 문제 해결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결혼만족도에 따라 유아를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유아의 성격형성이나 또래관계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윤혜영, 2000). 또한 부부갈등이 발생한 경우, 갈등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유아가 가장 부정적으로 반응한다(Cummings, Ballard, El-sheikh & Lake, 1991).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부부관계는 유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부부관계가 유아의 또래관계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반가정유아와 비교하여 연구해보고자 한다.

2. 또래관계

또래관계는 나이나 수준이 비슷한 집단 내에서 맺는 일반적인 관계를 말하는데(구지은, 2003), 유아는 또래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역할을 갖게 된다(최석란, 2002). 다문화유아들의 경우, 친구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경험보다는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황매향, 고흥월, 2010) 자주 위축되어있고 소극적으로 자기표현을 하는 등 또래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보이는데, 일반유아들과는 다른 이러한 또래관계 특성 때

문에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져 왔다(신윤진, 2010; 안선정, 임지영, Grace H. Chung, 2012).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들(김신영, 2008; 신윤진, 2010; 양진희, 2006; 조영달, 2006)은 다문화유아들의 또래관계에 관한 부적응을 한국어 능력부족, 상이한 외모, 한국문화에 대한 일차적 적응 실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어머니들 중에는 한국어가 능숙하거나 일본, 중국, 몽골 출신의 어머니들처럼 한국 어머니들과 외모가 비슷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이라는 일차적인 조건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현경순,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유아들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되어지는 변인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3. 정서지능

정서지능은 흔히 EQ(Emotional quotient)라고 불리는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정확히 인식하는 능력,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하는 능력(Salovey & Mayer, 1990)으로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대인관계를 다루는 능력(Goleman, 1995)으로 규명한다. 정서지능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유아들에게서 나타나는 심각한 정서지능의 문제는 또래관계 문제, 외현화된 문제행동, 위축된 행동, 반사회적인 행동 등 사회적응상의 문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문용린, 1997).

매년 다문화가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유아의 정서지능에 관한 실태 파악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2007) 실태조사에서는 일반유아에 비해 다문화유아들이 정서조절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인다고 보고 하였다. 그러나 유아의 정서지능이 적절히 발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머니로부터 오는 긍정적 신호가 중요하다고 보고된 바 있고(이창식, 박지영, 임인택, 2012), 따라서 다문화어머니들의 양육 행동과 관련된 변인들을 찾아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다문화유아의 건강한 정서지능발달을 도보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기에(민성혜, 이민영, 최혜영, 전해정, 2009),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유아들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되어지는 변인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4. 부부관계와 유아의 또래관계 간의 관계

유아는 부부간의 갈등을 인지하면서 가까운 친구관계의 갈등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영향을 받

는데, 이는 유아의 우정관계의 질이 가정에서 배운 갈등을 다루는 방식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kitzmann & Cohen, 2003).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유아는 높은 수준의 친사회성을 보이고(원유미, 1998),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어머니의 유아는 또래관계에서 활동적이고, 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도 긍정적이다(손인숙, 2001).

다문화가정은 서로 상이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 이루어진 국제결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부부갈등의 원인이 동일한 가치의식을 배우며 자라난 사람들이 만나 가정을 이룬 일반 가정의 경우와는 달리 조금 더 다양할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나라의 여성과 한국남성과의 결혼은 자칫 가부장제적 경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마치 준 계급 관계로 변화될 수도 있다(강선자, 2011). 즉, 다문화 가정의 경우 부부갈등이 생겼을 때 수평적인 공동 해결보다는 남편과 시댁식구의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학대나 위협과 같은 일방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강선자, 2011; 윤형숙, 2004). 부부관계에 민감한 유아는 이러한 불평등한 힘의 구조로 인한 부부갈등 상황을 재빨리 지각하게 된다. 이에 다문화유아들은 수평적 관계의 또래들과의 의견마찰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가정에서 관찰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일반유아와 다른 또래관계 발달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에서의 부부관계에 따른 유아의 또래관계에 관한 국내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에서의 부부관계가 유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내의 부부관계가 유아의 또래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5. 부부관계와 유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

부모의 정서표현 방식은 유아의 정서표현 방식의 모델이 되므로 유아의 관찰 가능한 부모 간의 상호작용이나 부모가 정서를 다루고 표현하는 양식은 유아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혜순, 2009). 즉, 부부관계가 좋고, 많은 애정을 보이며, 서로 간에 갈등이 적고, 특히 성숙을 갖추고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부모에게서 양육 받는 유아들은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거나 갈등이 심한 부모를 가진 유아들에 비해서 정서지능이 높을 수 있다(Hooven, Katz, & Gottman, 1995). 부부관계와 정서지능 간의 관계 연구에 관한 선행연구들(강은정, 2010; 김경희, 2010; 이옥경, 2008; 홍선표, 2008)에서도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지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문화적 배경이나 가치관이 다르고 부부간 관계의 특성이 다를 수 있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일반 가정과는 어떻게 다르게 유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3, 4, 5세의 60명의 다문화유아와 비교 집단인 60명의 일반유아, 그리고 그들의 부모와 유아의 담당 교사인 보육기관의 교사 등 총 120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의 성별과 연령 비율은 1:1이었다. 다문화유아와 일반유아는 각각 만 3세 20명(33.3%), 만 4세 20명(33.3%), 만 5세 20명(33.3%)으로 연령별로 적절히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조사에 앞서 설문지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도,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설문지 작성상의 문제점 등을 알아보기 위해 2012년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완성된 설문지를 2012년 5월 14일부터 2012년 6월 13일까지 연구자가 직접 질문지를 배부·회수하였다. 모국어를 읽는 데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같은 나라에서 온 다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연구대상 유아 및 부모의 일반적 특성

(N=60)

변인	구분	일반유아 아버지	다문화유아 아버지	일반유아 어머니	다문화유아 어머니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어머니 출신국적	한국			60(100)	
	중국				14(23.3)
	조선족				4(6.7)
	일본				4(6.7)
	필리핀				9(15.0)
	베트남				29(48.3)
부모연령	20대	3(5.0)	1(1.7)	7(11.7)	42(70.0)
	30대	40(66.7)	14(23.3)	45(75.0)	17(28.3)
	40대	17(28.3)	38(63.3)	8(13.3)	1(1.7)
	50대		7(11.7)		
부모학력	초졸이하	1(1.7)	1(1.7)	1(1.7)	1(1.7)
	중졸		11(18.3)	1(1.7)	25(41.6)
	고졸	23(38.3)	31(51.6)	24(40.0)	22(36.7)
	대졸	33(55.0)	16(26.7)	34(56.6)	12(20.0)
	대학원이상	3(5.0)	1(1.7)		
부모직업	전문직		1(1.7)	3(5.0)	
	관리직	9(15.0)	3(5.0)	1(1.7)	4(6.7)
	사무직	20(33.3)	18(30.0)	9(15.0)	1(1.7)
	자영업	10(16.7)	9(15.0)	2(3.3)	
	서비스업	2(3.3)		1(1.7)	
	숙련직	11(18.3)	12(20.0)	1(1.7)	8(13.3)
	비숙련직	3(5.0)	13(21.6)	2(3.3)	8(13.3)
	전업주부			41(68.3)	38(63.3)
	직업없음	5(8.4)	4(6.7)		1(1.7)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21(35.0)	21(35.0)		
	201-300만원	22(36.7)	22(36.7)		
	301-400만원	8(13.3)	8(13.3)		
	401만원 이상	3(5.0)	3(5.0)		
	잘모름	6(10.0)	6(10.0)		
총합		60	60	60	60

2. 측정도구

1) 결혼만족도

부부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Roach, Frazier, Bowden(1981)이 제작한 결혼만족도 척도(Marital Satisfaction Scale: MSS)를 허윤정(1997)이 우리 문화에 맞게 압축 구성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MSS는 6개의 부정문항과 12개의 긍정문항을 합하여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김혜경(2005)의 연구에서 보고된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9이며,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9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 부부갈등척도

부부간 갈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송말희(1990), 김갑숙과 최외선(1992)의 척도를 참고로 최규련(1994)이 개발한 '부부간 갈등에 대한 인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김은숙(2001)의 연구에서 보고된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5로 매우 높았다. 총 37문항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4개의 문항을 제외하여 총 3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8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척도별 신뢰도는 성격 및 가치관이 .94, 성생활 및 대화가 .93, 자녀문제가 .79, 원가족과의 문제가 .91, 경제문제가 .87, 본인의 나쁜 습관이 .86으로 나타났다.

3) 또래관계척도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교사가 평정하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교사의 평정에 의한 유아 또래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Fantuzzo, Coolahan, McDermontt와 Sutton-Smith(1998)의 'PIPPS(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를 수정 · 보완하여 최혜영(2004)이 제작한 또래관계 행동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PIPPS척도는 또래관계에 방해가 되는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 행동(12문항)과 도움이 되는 긍정적 상호작용 행동(8문항) 두 개 하위척도

로 구성되어있으며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척도는 대상 유아가 학급에서 또래와 상호작용을 할 때 보여준 행동에 근거하여, 교사가 평정 하도록 되어있다. 장수진(2008)의 연구에서 보고된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긍정적 또래 상호작용 행동이 .86,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 행동은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4로 나타났다.

4) 정서지능척도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Salovey와 Mayer(1990, 1996)의 정서지능 모형과 Goleman(1995)이 제시한 자기 정서인식, 정서의 조절, 자기 동기화, 감정이입, 대인관계 능력 등의 5가지 정서지능의 하위 요소들을 기초로 하여 김경희(1998)가 제작한 교사용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교사가 유아의 행동과 일치되는 정도에 따라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윤지은(2011)의 연구에서 보고된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5로 매우 높았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또한 .9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척도별 신뢰도는 자기정서인식 및 표현이 .90,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가 .82, 자기정서이용이 .92, 타인정서인식 및 배려가 .90, 교사와의 관계가 .85, 또래와의 관계가 .91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등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인(유아의 성별, 연령)에 따라 집단 간 부부간의 관계 및 자녀의 또래관계, 자녀의 정서지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부부 관계(결혼만족도, 부부간 갈등)가 자녀의 또래관계 및 자녀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V. 연구결과 및 해석

1.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먼저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부부간의 관계 및 유아의 또래관계, 유아의 정서지능의 점수 범위,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전체 부부간 결혼 만족도의 평균 점수는 59.58점이었으며, 부부간 결혼 만족도의 경우 18-90점의 측정 가능한 점수 범위를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결과는 중간 수준보다 약간 높은 것이었다.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을 나누어 살펴보면, 일반가정이 60.47점, 다문화가정이 58.70점으로 일반가정이 다문화가정보다 부부간 결혼 만족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부갈등의 평균 점수는 80.43점이었으며, 부부갈등의 경우 33-165점의 측정 가능한 점수 범위를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결과는 중간 수준보다 약간 낮은 것이었다.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을 나누어 살펴보면, 일반가정이 79.85점, 다문화가정이 81.02점으로 다문화가정이 일반가정보다 부부갈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유아가정과 다문화유아가정 간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의 점수 및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연구 대상인 다문화유아와 최대한 비슷한 배경을 가진 일반유아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점수 및 평균이 큰 차이가 없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일반유아와 다문화유아 전체 또래관계의 평균 점수는 33.32점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의 경우 0-60점의 점수 범위를 고려해 볼 때, 이것은 중간 수준보다 약간 높은 점수이다. 일반유아와 다문화유아를 나누어 살펴보면, 일반유아가 33.55점, 다문화유아가 33.08점으로 일반유아가 다문화유아보다 또래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일반유아와 다문화유아 전체의 정서지능총점의 평균 점수는 162.52점이었으며, 정서지능의 경우 50-250점의 측정 가능한 점수 범위를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결과는 중간 수준보다 약간 높은 점수이다. 일반유아와 다문화유아를 나누어 살펴보면, 일반유아가 171.05점, 다문화유아가 153.98점으로 일반유아가 다문화유아보다 정서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정서지능의 하위 점수를 살펴보면, 우선 자기 정서의 인식 및 표현의 평균 점수는 31.89점

이었으며, 9-45점의 점수 범위를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결과는 중간 수준보다 약간 높은 것이다. 일반유아와 다문화유아를 나누어 살펴보면, 일반유아가 34.92점, 다문화유아가 28.87점으로 일반유아가 다문화유아보다 자기 정서의 인식 및 표현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타인정서인식 및 배려의 평균 점수는 32.22점이었으며, 10-50점의 점수 범위를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결과는 중간 수준보다 약간 높은 것이다. 일반유아와 다문화유아를 나누어 살펴보면, 일반유아가 33.42점, 다문화유아가 31.02점으로 일반유아가 다문화유아보다 타인정서를 인식하고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교사와의 관계의 평균점수는 18.22점이었으며, 5-25점의 점수 범위를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결과는 중간 수준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유아와 다문화유아를 나누어 살펴보면, 일반유아가 19.82점, 다문화유아가 16.62점으로 일반유아가 다문화유아보다 교사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와의 관계의 평균 점수는 16.43점이었으며, 5-25점의 점수 범위를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결과는 중간 수준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유아와 다문화유아를 나누어 살펴보면, 일반유아가 17.72점, 다문화유아가 15.15점으로 일반유아가 다문화유아보다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그리고 또래와의 관계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2>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N=120)							
변인	집단	표본 수	가능한 점수범위	측정된 점수범위	평균	표준편차	t
결혼 만족도	총점	일반가정	60	18-90	22-85	60.47	-67
		다문화가정	60	18-90	40-86	58.70	
		전체	120	18-90	22-86	59.58	
부부 갈등	총점	일반가정	60	33-165	34-157	79.85	.22
		다문화가정	60	33-165	32-127	81.02	
		전체	120	33-165	32-157	80.43	
또래 관계	총점	일반유아	60	0-60	8-54	33.55	-38
		다문화유아	60	0-60	14-51	33.08	
		전체	120	0-60	8-54	33.32	
정서 지능	자기 정서 인식 및 표현	일반유아	60	9-45	15-45	34.92	-5.60***
		다문화유아	60	9-45	15-41	28.87	
		전체	120	9-45	15-45	31.89	

감정 조절 및 충동 억제	일반유아	60	9-45	10-42	27.75	6.20	-.41
	다문화유아	60	9-45	16-41	27.32	5.29	
	전체	120	9-45	10-42	27.53	5.75	
자기 정서 이용	일반유아	60	12-60	13-48	37.43	10.13	-1.52
	다문화유아	60	12-60	23-47	35.02	6.98	
	전체	120	12-60	13-48	36.23	8.74	
타인 정서 인식 및 배려	일반유아	60	10-50	16-43	33.42	6.81	-2.01*
	다문화유아	60	10-50	16-39	31.02	6.26	
	전체	120	10-50	16-43	32.22	6.63	
교사와의 관계	일반유아	60	5-25	12-25	19.82	3.35	-4.80***
	다문화유아	60	5-25	7-25	16.62	3.92	
	전체	120	5-25	7-25	18.22	3.97	
또래와의 관계	일반유아	60	5-25	6-25	17.72	4.12	-3.37**
	다문화유아	60	5-25	7-23	15.15	4.21	
	전체	120	5-25	6-25	16.43	4.35	
총점	일반유아	60	50-250	97-230	171.05	27.67	-3.38**
	다문화유아	60	50-250	95-199	153.98	27.59	
	전체	120	50-250	95-230	162.52	28.82	

* $p<.05$, ** $p<.01$, *** $p<.001$

한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연구변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모두 유아의 성별에 따라 유아의 또래관계와 정서지능은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유아의 연령에 따라 유아의 또래관계와 정서지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유아의 또래관계, 그리고 유아의 정서지능의 점수 범위,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 유아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t검정 및 분산분석결과

		유아의 또래관계		유아의 정서지능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별	일반 가정	남	34.23	7.17	170.70	28.10
		여	32.87	6.25	171.40	27.70
		t	.79		-.10	
		합계	33.55	6.71	171.05	27.67
	다문화 가정	남	32.40	7.50	156.00	27.17
		여	33.77	5.76	151.97	28.32

		t	-.79	.56		
연령	일반 가정	합계	33.08	6.67	153.98	27.59
		3세	34.40	8.76	173.85	35.03
		4세	35.40	5.94	178.15	18.26
		5세	30.85	3.94	161.15	25.55
		f	2.69		2.12	
	다문화 가정	합계	33.55	6.71	171.05	27.67
		3세	33.45	5.03	164.35	25.38
		4세	32.55	7.89	150.00	30.27
		5세	33.25	7.07	147.60	25.11
		f	.10		2.25	
		합계	33.08	6.67	153.98	27.59

* $p < .05$,

2.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유아의 또래관계 및 정서지능 간의 상관관계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유아의 또래관계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에 앞서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일반가정유아의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결혼만족도와 유아의 또래관계($r=.182$, ns), 결혼만족도와 유아의 정서지능($r=-.008$, ns)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지만,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r=-.940$, $p<.01$)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부갈등과 유아의 또래관계($r=-.178$, ns), 부부갈등과 유아의 정서지능($r=-.085$, ns)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지만, 유아의 또래관계와 정서지능($r=.723$, $p<.01$)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일수록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문화유아의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결혼만족도와 유아의 또래관계($r=.137$, ns)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지만,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r=-.398$, $p<.01$), 부부갈등과 유아의 또래관계($r=-.294$, $p<.05$)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유아의 경우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낮고, 부모의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유아는 긍정적 또래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부갈등과 유아의 정서지능($r=-.027$, ns)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지

만, 결혼만족도와 유아의 정서지능($r=.304$, $p<.05$)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유아의 경우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또래관계와 정서지능($r=.450$, $p<.01$)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일수록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유아와 다문화유아의 경우 모두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관관계의 수치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일반유아 부모는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다문화유아 부모의 경우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간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았다.

<표 4>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분석결과

	1	2	3	4	5	6	7	8	9	10
1. 결혼 만족도	1	-.940**	.182	-.008	-.069	.095	.014	-.050	-.088	.014
2. 부부갈등	-.398**	1	-.178	-.085	-.070	-.124	-.086	-.006	-.006	-.069
3. 또래관계	.137	-.294*	1	.723**	.233	.738**	.460**	.772**	.486**	.653**
4. 정서지능	.304*	-.027	.450**	1	.646**	.616**	.840**	.850**	.781**	.879**
5. 자기정서 인식 및 표현	.221	.143	.141	.828**	1	.143	.452**	.476**	.515**	.558**
6.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	.105	.112	.544**	.591**	.216	1	.333**	.577**	.312*	.426**
7. 자기정서 이용	.219	-.094	.374**	.862**	.637**	.417**	1	.536**	.623**	.728**
8. 타인정서 인식 및 배려	.260*	-.074	.601**	.922**	.663**	.653**	.731**	1	.668**	.736**
9. 교사와의 관계	.397**	-.095	.225	.881**	.800**	.317*	.709**	.760**	1	.689**
10. 또래와의 관계	.392**	-.186	.322*	.886**	.797**	.322*	.715**	.769**	.881**	1

주. 대각선 상단은 일반유아, 하단은 다문화유아임.

* $p<.05$, ** $p<.01$, *** $p<.001$

1. 결혼만족도, 2. 부부갈등, 3. 또래관계, 4. 정서지능, 5. 자기정서인식 및 표현, 6.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 7. 자기정서이용, 8. 타인정서인식 및 배려, 9. 교사와의 관계, 10. 또래와의 관계

3.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유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결혼만족도 및 부부갈등과 유아의 또래관계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유아와 다문화유아의 상관관계 패턴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에 일반유아와 다문화유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을 각각 독립변수로, 또래관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 <표 6>, <표 7>, <표 8>과 같다.

1) 결혼만족도가 일반유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표 5>과 같이 일반유아의 경우 결혼만족도가 유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3%를 설명하였다. 결혼만족도($\beta=.18$, ns)는 또래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표 5> 결혼만족도가 일반유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N=60)								
집단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B	β	t	R ²	F
일반유아	또래관계	결혼만족도	.08	.06	.18	1.41	.033	1.99

2) 부부갈등이 일반유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표 6>과 같이 일반유아의 경우 부부갈등이 유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3%를 설명하였다. 부부갈등($\beta=-.18$, ns)은 또래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표 6> 부부갈등이 일반유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N=60)								
집단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B	β	t	R ²	F
일반유아	또래관계	부부갈등	-.04	.03	-.18	-1.38	.032	1.90

3) 결혼만족도가 다문화유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표 7>와 같이 다문화유아의 경우 결혼만족도가 유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2%를 설명하였다. 결혼만족도($\beta=.14$, ns)는 또래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표 7> 결혼만족도가 다문화유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N=60)								
집단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B	β	t	R ²	F
다문화유아	또래관계	결혼만족도	.07	.07	.14	1.05	.02	1.11

4) 부부갈등이 다문화유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표 8>과 같이 다문화유아의 경우 부부갈등이 유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9%를 설명하였다. 부부갈등($\beta=-.29$, $p<.05$)은 또래관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부부갈등이 다문화유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N=60)								
집단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B	β	t	R ²	F
다문화유아	또래관계	부부갈등	-.08	.03	-.29*	-2.34*	.09	5.48*

* $p<.05$

4.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결혼만족도 및 부부갈등과 유아의 정서지능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유아와 다문화유아의 상관관계 패턴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에 일반유아와 다문화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을 각각 독립변수로, 정서지능의 하위변인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 <표 10>, <표 11>, <표 12>, <표 13>, <표 14>와 같다.

1) 결혼만족도가 일반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표 9>와 같이 일반유아의 경우 결혼만족도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의 0%를 설명하였다. 결혼만족도($\beta = -.01$, ns)는 정서지능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표 9> 결혼만족도가 일반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N=60)								
집단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B	β	t	R ²	F
일반유아	정서지능	결혼만족도	-.01	.23	-.01	-.06	.00	.00

2) 부부갈등이 일반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표 10>와 같이 일반유아의 경우 부부갈등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의 1%를 설명하였다. 부부갈등($\beta = -.09$, ns)은 정서지능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표 10> 부부갈등이 일반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N=60)								
집단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B	β	t	R ²	F
일반유아	정서지능	부부갈등	-.07	.11	-.09	-.65	.01	.42

3)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일반유아의 정서지능 하위변인별 미치는 영향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일반유아의 전체 정서지능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기에 <표 11>과 같이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일반유아의 정서지능 하위요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유아의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beta = -1.16$, $p < .01$)에서만 부부갈등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일반유아는 자기정서의 인식이나 표현력이 적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유아의 경우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유아의 정서지

능 하위변인 중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에 16%를 설명하였다.

<표 11>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일반유아의 정서지능 하위변인별 미치는 영향 (N=60)

집단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B	β	t	R ²	F
일반 유아	자기정서 인식 및 표현	결혼만족도	-.38	.12	-1.16	-3.25	.161	5.46**
		부부갈등	-.18	.06	-1.16**	-3.25**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	결혼만족도	-.07	.15	-.18	-.47	.02	.56
		부부갈등	-.06	.07	-.29	-.77		
	자기정서이용	결혼만족도	-.37	.25	-.58	-1.53	.05	1.39
		부부갈등	-.20	.12	-.63	-1.66		
	타인정서인식 및 배려	결혼만족도	-.21	.17	-.48	-1.25	.03	.78
		부부갈등	-.10	.08	-.45	-1.19		
	교사와의 관계	결혼만족도	-.17	.08	-.81	-2.17	.076	2.35
		부부갈등	-.08	.04	-.77*	-2.05*		
	또래와의 관계	결혼만족도	-.12	.10	-.44	-1.14	.027	.79
		부부갈등	-.06	.05	-.48	-1.25		

* $p<.05$, ** $p<.01$

4) 결혼만족도가 다문화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표 12>과 같이 다문화유아의 경우 결혼만족도는 유아의 정서지능에 9%를 설명하였다. 결혼만족도($\beta=.30$, $p<.05$)는 정서지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다문화유아의 정서지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2> 결혼만족도가 다문화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N=60)

집단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B	β	t	R ²	F
다문화유아	정서지능	결혼만족도	.65	.27	.30*	2.43*	.09	5.90*

* $p<.05$

5) 부부갈등이 다문화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표 13>과 같이 다문화유아의 경우 부부갈등은 유아의 정서지능에 0%를 설명하였다. 부부갈등($\beta = -.03$, ns)은 정서지능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표 13> 부부갈등이 다문화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N=60)								
집단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B	β	t	R ²	F
다문화유아	정서지능	부부갈등	-.03	.15	-.03	-.02	.00	.04

6)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다문화유아의 정서지능 하위변인별 미치는 영향

<표 14>와 같이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다문화유아의 정서지능 하위요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결혼만족도는 유아의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beta = .33$, $p < .05$), 교사와의 관계($\beta = .43$, $p < .01$) 그리고 또래와의 관계($\beta = .38$, $p < .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다문화유아는 자기정서의 인식이나 표현력이 높고,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며, 또래관계 상황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유아의 경우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유아의 정서지능 하위변인 중에서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에 16%를 설명하였고, 교사와의 관계는 16%, 또래와의 관계는 16%를 설명하였다.

<표 14>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다문화유아의 정서지능 하위변인별 미치는 영향

(N=60)								
집단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B	β	t	R ²	F
다문화 유아	자기정서 인식 및 표현	결혼만족도	.17	.07	.33*	2.43*	.11	3.61*
		부부갈등	.08	.04	.28	2.02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	결혼만족도	.07	.06	.18	1.26	.04	1.17
		부부갈등	.04	.03	.18	1.30		
	자기정서이용	결혼만족도	.12	.08	.22	1.53	.05	1.44
		부부갈등	-.00	.04	-.01	-.06		

타인정서인식 및 배려	결혼만족도	.13	.07	.28	1.97	.07	2.11
	부부갈등	.01	.04	.04	.26		
교사와의 관계	결혼만족도	.13	.04	.43**	3.23**	.16	5.52**
	부부갈등	.01	.02	.08	.57		
또래와의 관계	결혼만족도	.12	.04	.38**	2.85**	.16	5.22**
	부부갈등	-.01	.02	-.04	-.27		

* $p < .05$, ** $p < .01$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부부관계가 유아의 또래관계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유아의 또래관계, 유아의 정서지능 간의 상관관계와 각 변인의 영향력에 대해 일반가정유아와 비교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관계(결혼만족도, 부부갈등)가 유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반가정의 경우 부부관계가 유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유아의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일반가정의 부부갈등과는 다른 언어소통장애, 인종별시, 결혼경로, 국적취득, 친정식구들의 지나친 의존과 기대(현경순, 2008) 등의 국제결혼이라는 특수상황으로 인해 생기는 부부갈등 요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일반가정 어머니에 비해 부부갈등을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안선정, 임지영, Grace H, Chung, 2012). 부부갈등상황에 자주 노출된 유아의 경우 부모 양자 간의 부정적인 상호방식을 모델링하게 되는데(Grych & Fincham, 1990) 일반가정 유아에 비해 부부간 갈등을 지각할 가능성이 높은 다문화 가정 유아는 일반가정 유아보다 또래갈등도 더 자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안선정, 임지영, Grace H, Chung, 2012; 조영달, 2006).

이렇듯 다문화가정 부부갈등이 유아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하지만 조부모를 비롯한 확대가족과의 관계, 또래들과의 관계, 또는 교사나 이웃들의 지지 등이 개입하면 그 효과를 완충시킬

수 있다(현경순, 2008). 그러나 다문화가정을 보는 내국인들의 편향된 시선, 친척들의 냉대(설동훈 외, 2005)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다문화유아는 부부갈등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완충시킬 수 있는 요건이 적기 때문에, 일반유아보다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형성에 부부갈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부부관계(결혼만족도, 부부갈등)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반 가정의 경우 결혼만족도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정 경우에는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의 정서지능은 교사가 지각한 결과이므로 주관적일 수 있고 부모가 지각하는 유아의 정서지능과는 다를 수 있다. 결혼만족도가 다문화유아 정서지능의 하위변인별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또래와의 관계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의 결혼만족도와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유아의 성장발달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머니의 양육태도라는 강선자(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아들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주지만(배문주, 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아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즉, 유아가 어머니의 태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나 양육태도 못지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유아들의 자존감이나 적응력, 또는 성취의욕 같은 내적 자원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긍정적 내적자원이 충분할 경우 낮은 결혼만족도로 인해 부적절하고 모순된 어머니의 양육태도일지라도 유아들은 내적자원들을 통해 그 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경희, 2010). 즉, 내적자원들이 충분한 유아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낮아도 교사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이것을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발전시켜 또래와의 관계를 잘 맺고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친구에게 양보하는 등 자신의 정서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서 반응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유아는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낮은 자아정체감(김미혜, 1982), 소외와 또래유아들과의 대화부재(권오희, 2006) 등 많은 경우에 있어 긍정적 내적자원의 발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지니고 있어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여과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현경순, 2008).

반면 일반유아와 다문화유아 모두 부부갈등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부갈등이 일반유아와 다문화유아의 정서지능 하위변인별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일반유아만이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과 교사와의 관계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가 부모의 부부갈등이 발생할 때 갈등의 강도가 심하

다고 지각할수록 감정이입과 정서조절을 제외한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활용, 전체정서지능에 있어 더 낮은 능력을 보이고, 부모의 격렬한 분노 상황에 노출되는 것은 유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혜순, 2009; 홍선표, 2008). 그러나 다문화유아의 경우,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수성에서 오는 낮은 자아정체감(김미혜, 1982), 또래로부터 소외 혹은 거부(권오희, 2006)의 경험들에 의해 일반유아보다 정서표현이나 정서활용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갈등의 영향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정서지능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만 3,4,5세 유아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부부관계가 유아의 또래관계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지만 이 연령대만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발달을 이해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러므로 좀 더 넓은 연령대의 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각 변인들의 상관성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 유아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국내의 타 지역을 포함한 좀 더 광범위한 지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유아의 또래관계와 정서지능은 환경적인 요소 등 유아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인 배경이 다양한 대상을 통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유아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언어나 인지 관련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 다문화유아의 사회성과 정서발달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일반가정유아는 다문화가정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아의 또래관계나 정서지능에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는데, 이는 일반가정유아는 다문화가정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아의 또래관계나 정서지능이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일반가정유아는 부부관계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완충시켜줄 수 있는 조부모나 친척, 이웃, 또래, 교사 등의 다양한 외부효과가 있는 반면, 다문화가정유아는 일반가정유아보다 사회적 지지가 적기 때문에(현경순, 2008) 또 다른 보호요인이기도 한 가족,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유아와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부부관계 향상을 위해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남편, 시부모 교육 프로그램,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선자(2011). 영아기 자녀를 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자녀양육태도에 관한 사례연구.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연희(2008). 정서지능강화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정서능력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은정(2010). 부부결합도, 유아의 정서지능 및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관계.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지은(2003). 아동의 컴퓨터 게임중독과 또래관계의 기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영옥, 이정덕(1998).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0(1), 1-19.
- 권오희(2006). 국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문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복순, 차보현(2006). 농촌지역 코시안 가정 주부의 의사소통능력,문화적 정체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지, 58(3), 109-134.
- 김경희(1998). 교사용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희(2010).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정서표현성 및 유아의 정서지능간의 관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진(1997).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태도 일치정도와 유아의 사회 · 정서적 발달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혜(1982). 혼혈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영(2008). 협동조형활동을 통한 다문화 가정 유아의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숙(2001). 부부갈등 및 부부관계 특성과 아동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성향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이선, 황정미, 이진영(2007). 다민족 ·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해영(1995). 저소득층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능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경(2009).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격차 인식, 문화적응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4(5), 220-253.
- 김혜경(2005). 여성지체장애인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순(2009). 부부갈등이 아동의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마송희(1992). 유아의 정서능력에 관한 질적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메디컬투데이(2011.12.3) : 외국인, 서울시 인구 중 2.71% 차지.

- 문용린(1997). EQ가 높으면 성공이 보인다. 서울: 글이랑.
- 민정혜, 이민영, 최혜영, 전해정(2009). 다문화가정 유아기 자녀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7(1), 55-63.
- 박미경(2007).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 가정 유아의 특성 및 교사의 어려움-결혼이민자 가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아(2009).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자기조절능력을 통해 친구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문주(2005).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태도 일치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법무부(2011) : 국적별 결혼이민자(국민의 배우자) 체류현황
- 법무부(2011) : 주요 국가별 체류외국인 증감 현황
- 보건복지부(2007). 국제결혼가정 자녀 실태조사 및 성장지원 방안 연구
- 설동훈 외(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 과천; 보건복지부
- 손인숙(2001). 유아의 유치원 적응 관계변인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운진(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 적응과 또래관계.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선정, 임지영, Grace H. Chung(2012).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또래관계가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1), 15-28.
- 안진경(2011). 다문화가정 부부의 적응역량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진희(2006). 한국사회 다문화가정의 유아와 어머니의 한국인 되기에 대한 문화 기술적 연구.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 서울: 경인교육대학교
- 원유미(1998). 부모의 양육태도, 결혼만족도, 의사결정유형과 자녀 특성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지은(2011). 유아의 정서지능 및 또래 유능성과 유치원 적응간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형숙(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서울: 한울아카데미.
- 윤혜영(2000). 부모의 결혼 만족도와 양육태도가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자(2009). 다문화가정 부부갈등 요인과 대책연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옥경(2008).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행복도와 정서지능과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식, 박지영, 임인택(2012). 농촌다문화 초등학교 학생의 사회적지지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9(4), 881-904.
- 이혜경(2005).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여성의 인권.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 10주년 기념 아시아 이주여성 국제포럼
- 임지현(2009). 아동의 또래관계와 사회적 기술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2007).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은희, 이미숙(2004).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아동의 공격성과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115-126.
- 조경은(2008).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가족규칙 및 아동의 내외통제성이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최규련(1994). 가족체계 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 최석란(2002). 어린이의 또래관계. 서울: 다음세대
- 최혜영(2004).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과 교사신념 및 교사 행동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2011). 2010년 혼인 · 이혼 통계결과.
- 행정안전부(2008). 국제결혼여성 자녀 현황.
- 허윤정(1997). 부부관계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의사소통과 갈등해결방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경순(2008). 국제결혼부부의 부부갈등 및 양육태도가 자녀들의 학교생활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달아기, 채옥희(2007). 국제결혼부부의 가치관 및 의사소통유형과갈등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6(11), 61-73.
- 홍선표(2008).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정서지능이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매향, 고흥월(2010). 초등교사를 위한 다문화상담 길잡이. 학지사.
- Cummings, E. M., Ballard, M., El-Sheikh, M., & Lake, M.(1991). Resolution and children's responses to interadult anger.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62-470.
- Goleman, D.(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Gottman, J. M., Hooven, C. & Katz, L.(1995). Observational methodology for infant research, *Journal of Cognition and Emotion*, 9, 229-264.
- Grych, J. H., & Finchman, F. D.(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Katherine, M., Kitzmann & Robert, Cohen.(2003). Parents' versus children's perceptions of interparental conflict as predictors of children's friendship qualit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0, 689-700.
- Mace, D., & Mace, V.(1976). Marriage Enrichment: a preventive group approach in couple. In D. H Olson(Ed.). *Treating Relationship*. Lake Mills. Iowa: Publishing Co.
- Mayer, J. D., Dipaolo, M., & Salovey, P.(1990). Perceiving affective content in ambiguous visual stimuli: A compon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3-4), 772-781.

Mayer, J & Salovey, P.(1996).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identification of emotion. *Intelligence*, 245-267

Thomas, E. J.(1977). *Marital communication and decision making*. New York: The press.

www.kostat.go.kr

www.mdtoday.co.kr

www.moj.go.kr

www.mospa.go.kr

www.mw.go.kr

Abstract

The Effect of Marital Relationship in Multicultural Families on Peer Relationship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Young Children : Focusing on Women of Multicultural Families

Kim, Jin-Hee* · Lim, Ji-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 of marital satisfaction and interparental conflict in multicultural families on peer relationship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young children. For achieving this objective, this study was conducted targeting 60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60 children of Korean families aged three to five selected from preschools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located in Daegu city and Gyeongsangbuk-do. Marital satisfaction and interparental conflict were assessed by their mothers using Marital Satisfaction Scale(Roach, Frazier & Bowden, 1981) and Cognitive of Marital Satisfaction(Choi, 1994).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Fantuzzo, Coolahan, McDermontt & Sutton-Smith, 1998) and Emotional Intelligence Rating Scale(Kim, 1998) were used for their teachers to measure young children's peer relationship and emotional intelligence.

The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Cronbach's α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effect of marital satisfaction and interparental conflict on Korean young children's peer relationship. However, there was negative effect of interparental conflict on multicultural young children's peer relationship.

Second, there was no effect of marital satisfaction and interparental conflict on Korean you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However, there was positive effect of marital satisfaction on multicultural you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In conclusion, multicultural children's peer relationship and emotional intelligence were more affected by their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and interparental conflict than their counterparts' peer relationship and emotional intelligence.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ies, Marital Satisfaction, Interparental Conflict, Peer Relationship, Emotional Intelligence

* Doctoral Course,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Child Studies, Major in Child and Family Studies · CBA(Center for Beautiful Ag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